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정 민[†] 노 안 영

전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G시 소재 대학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진로장애검사, 진로정체감검사, 자아강도 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강도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 진로장애, 진로정체감, 자아강도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및 상담성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진로장애,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자아강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 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saiyoobj@hanmail.net

대학시절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고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책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많은 숙고와 준비를 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수록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게 되며 결정이 잘 이루어지면 성인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인기로의 이행에 영향을 끼쳐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되며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대학 진학 후 전과나 중도탈락이 늘고 있으며(장선량, 김혜영, 2004) 최근 경제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은영, 2001).

진로결과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2). 이러한 진로결정과 관련한 연구는 진로의사결정(고향자, 1992), 진로정체감(김봉환, 1997), 진로장애(김은영, 2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성식, 2007) 등이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한 변인 중 진로장애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은영, 2001, 이상희, 2006, 이성식, 2007).

진로장애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수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말한다(Swanson & Woitke, 1997).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손은령, 2001; 이상희, 2006; 이

성식, 2007). 손은령(2001)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상희(200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인 진로결정수준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Swanson, Daniels와 Tokar(199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및 직업정체성 변인과 진로장애 척도 간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Lusso(1996)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장애와 진로의사결정간에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직업적 장애에 대한 지각이 진로의사결정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손은령, 2001; 이상희, 2006; 이성식, 2007)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들 또한 보고되고 있어(Swanson, Daniels, & Tokar, 1996; Luzzo, 1997) 두 변인간에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 관련된 조절변인이나 집단 특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로장애와 진로결정간의 관계에 관련된 조절변인을 찾아 변인들간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간의 조절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며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의미한다(이정규, 2006). 청년기는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를 지각하고 결정하는데 진로정체감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을 나타내는 선별자로서 진로정체감을 제안했으며, Holland, Gottfredson과 Power(1980)는 진로정체감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사회진출이라는 큰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진로정체감 형성이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정체감을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은주(2001)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발견했다.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Gushue, Clarke, Pantzer와 Scanlan(2006)은 라틴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직업정체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지각된 진로장애가 클수록 직업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봉환(199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오치선, 이복희(2005)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인(2001)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Long,

Sowa와 Nile(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집단과 결정 집단간에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진로결정 집단이 진로미결정 집단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로결정과 미결정 집단간에 진로정체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성식(2007)과 Swanson, Daniels와 Tokar(1996)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일관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진로장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집단간의 차이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이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 조절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진로정체감이라는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 문제해결 및 결정요인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인 변인으로 자아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한 영향변인으로써 자아강도의 역할을 선행연구(하영윤, 1996; 권혜경, 이희경, 2004)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자아강도란 자아의 통합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Barron, 1953) Duckworth(1979)는 자아강도가 높은 사람은 탄력적이어서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아강도와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아강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혜경과 이희경(200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강도와 진로태도 성숙도 및 그 하위 요인인 진로 결정성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고했다.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고 진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낙관성과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강도가 매개함을 보고했다.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높고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강도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Bidwell(1969)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직업 준비도가 높음을 보고했고 퇴원 후 취업한 사람들이 퇴원 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기간에 측정된 자아강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강도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적요인으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아강도는 적응 및 부적응과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Himelstein(196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집단과 필요가 없는 집단간에 자아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온 자발적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간에도 자아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상담이 필요 없는 집단과 자발적인 집단의 자아강도가 상담이 필요한 집단과 비자발적인 집단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Kleinmuntz(196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적인 학생들이 부적응적인 학생들에 비해 자아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

계를 살펴본 하영윤(199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강도가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회피나 체념, 일시적인 감정해결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는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보다 적응적이며 문제에 보다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Eysenck와 Eysenck(1969)는 강한 자아강도의 특징으로 정서적 안정, 생에 대한 현실적임, 확고부동하고 자기 통제적이며 조용하고 차분함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강도와 진로관련 변인간의 관계성과 적응적이고 유연한 성격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가 진로에 대한 자아의 명확성, 자아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두 요인사이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진로정체감, 자아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광주시 소재 4년제 대학 심리학개론 및 취업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26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261명 중 남자는 144명(55.2%), 여자는 117명(44.8%), 학년별로 1학년 82명(31.4%), 2학년 79명(30.26%), 3학년 64명(24.5%), 4학년 36명(13.5%), 단대별로는 공대 97명(37.2%), 인문대 43명(16.5%), 사회대 38명(14.6%), 자연대 32명(12.3%), 사범대 29명(11.1%), 예술대 17명(6.5%), 기타 5명(1.8%)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2.62세($SD = 2.17$)이었다.

측정도구

진로탐색장애검사

김은영(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요인,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요인 불안의 9개 하위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34, 대인관계 어려움 .810, 자기명확성 부족 .798, 경제적 어려움 .754, 중요타인과의 갈등 .843, 직업정보부족 .861, 나이문제 요인 .712, 신체적 열등감 .764, 흥미부족 .701, 미래요인 불안 .743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검사

Holland, Gottfredson,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표준화한 진로정체감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0점)’, ‘아니오(1점)’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그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7로 나타났다.

자아강도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특수척도 중 Barron(1953)에 의해 제작된 자아강도 척도를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정서적 안정감, 신체적 안녕감,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 공포의 부재,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유약함의 부인, 비종교적 태도, 기타의 9개 요인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그렇다’, ‘아니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0,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754, 정서적 안정감 .798, 신체적 안녕감 .841,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 .789, 공포의 부재 .897,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876, 유약함의 부인 .764, 비종교적 태도 .745, 기타 .701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검사

Osipow(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진로미결정의 2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74, 진로와 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843, 교육과 진로결정 .897로 나타났다.

결 과

측정변인들간의 관계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 자아강도, 진로결정수준 및 그 하위요인들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 진로결정수준 및 그

표 1.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

	1	2	3	4
1. 진로장애	-			
2. 진로정체감	-.250**	-		
3. 자아강도	-.343**	.217**	-	
4. 진로결정수준	-.290**	.287**	.290***	-

주. ** $p < .01$.

하위요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 R^2 가 0.01~0.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2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장애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진로결정 수준 및 그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부족($\beta = -.408, p < .001$), 흥미부족($\beta = -.301, p < .001$), 자기명확성부족($\beta = -.312, p < .001$), 대인관계어려움($\beta = -.189, p < .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beta = -.151, p < .001$) 순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직업정보, 흥미,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직업정보부족에 의해 44%, 흥미

표 2. 진로장애 하위변인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N = 261$)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진로결정수준	직업정보부족	-.408	.440	.440	203.804***
	흥미부족	-.301	.607	.167	199.226***
진로결정수준	자기명확성부족	-.312	.634	.027	151.211***
	대인관계어려움	-.189	.650	.016	121.677***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51	.665	.015	104.367***

주. *** $p < .001$.

부족에 의해 1.67%, 자기명확성부족에 의해 2.7%, 대인관계어려움에 의해 1.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의해 1.5%가 설명되며 전체 설명량은 66.5%로 나타났다.

진로장애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장애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인 흥미부족($\beta = -.355, p < .001$), 신체열등감($\beta = -.242, p < .001$), 나이문제($\beta = .392, p < .001$), 직업정보부족($\beta = -.134, p < .001$),

자기명확성부족($\beta = -.125, p < .001$), 대인관계어려움($\beta = -.121, p < .001$), 중요한타인과의 갈등($\beta = -.119, p < .001$) 순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흥미가 부족할수록, 신체열등감이 많을수록, 직업정보,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높고, 중요한타인과의 갈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문제는 오히려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흥미부족에 의해 12.6%, 신체열등감에 의해 5.2%, 나이문제에 의해 9.6%, 직업정보부족에 의해 1.5%, 자기명확성부족에 의해 0.3%, 대인관계어려움에 의해

표 3. 진로장애 하위변인과 진로정체감간의 관계($N = 261$)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진로정체감	흥미부족	-.355	.126	.126	37.467***
	신체열등감	-.242	.178	.052	27.885***
	나이문제	.392	.274	.096	32.372***
	직업정보부족	-.134	.289	.015	25.997***
	자기명확성부족	-.125	.292	.003	24.257***
	대인관계어려움	-.121	.294	.002	23.689***
	중요타인과의갈등	-.119	.297	.003	21.683***

주. *** $p < .001$.

표 4. 진로장애 하위변인과 자아강도간의 관계($N = 261$)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자아강도	자기명확성부족	-.392	.154	.154	47.050***
	직업정보부족	-.211	.184	.030	29.091***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37	.200	.016	21.483***
	흥미부족	-.186	.220	.020	18.076***
	대인관계어려움	-.131	.231	.011	17.314***

주. *** $p < .001$.

0.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의해 0.3%가 설명되며 전체 설명량은 29.7%로 나타났다.

진로장애가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장애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자아강도를 종속변인으로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인 자기명확성부족($\beta = -.392, p < .001$), 직업정보부족($\beta = -.211, p < .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beta = -.137, p < .001$), 흥미부족($\beta = -.186, p < .001$), 대인관계어려움($\beta = -.131, p < .001$) 순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기명확성, 직업정보가 부족할수록,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높을수록, 흥미가 부족할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할수록 자아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자기명확성부족에 의해 1.54%, 직업정보부족에 의해 3.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의해 1.6%, 흥미부족에 의해 2.0%, 대인관계 어려움에 의해 1.1%가 설명되며 전체 설명량은 23.1%로 나타났다.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 정체감의 조절효과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 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델의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 검증은 집단간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차를 줄이고 간명하게 조절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검증 방법이다. 진로정체감이 진로장애와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정체감 상위 30%를 진로정체감 고집단으로, 하위 30%를 진로정체감 저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분석 결과 표 5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 고집단의 경우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78, p < .001$), 진로정체감 저집단의 경우도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1, p < .05$).

진로정체감 고집단과 진로정체감 저집단의 표준화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은 3.04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 간 표준화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체감에 따라 진로장애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진로정체감 점수별로 진로장애에 대해 저집단(평균-1SD이하), 평균집단(평균±1SD), 고집단(평균+1SD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진로 정체감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고집

표 5.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진로정체감 고집단	3.35	.67	.78	5.01***
진로정체감 저집단	1.46	.74	.51	1.97*
차이				3.04***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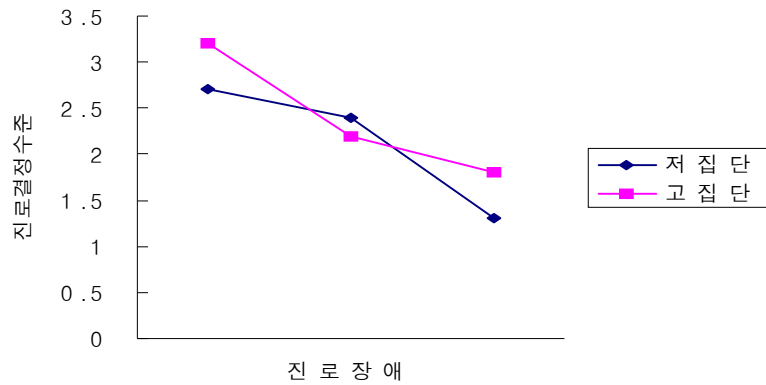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

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았다. 진로정체감 점수는 극단값들이 나타나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앙값을 중심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 진로장애가 평균인 집단, 진로장애가 높은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점수는 각각 2.7, 2.4, 1.3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각각 3.2, 2.2, 1.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 고집단과 저집단은 진로장애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진로장애가 평균인 집단에서는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의 평균집단을 빼버리면 주효과만 나타나고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진로장애($F(2, 154) = 3.54, p < .01$), 진로정체감($F(1, 155) = 2.37, p < .05$),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F(2, 154) = 2.90, p < .05$)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강도가 진로장애와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강도 상위 30%를 자아강도 고집단으로, 하위 30%를 자아강도 저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분석 결과 표 5를 살펴보면, 자아강도

표 6.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자아강도 고집단	2.79	.69	.86	4.04***
자아강도 저집단	1.75	.87	.52	2.01*
차이				2.03*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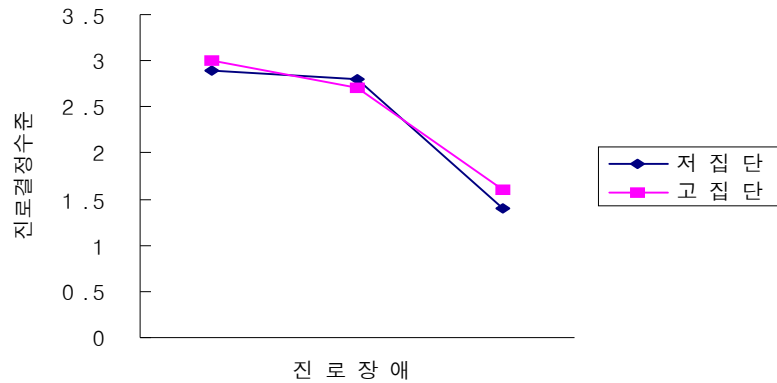


그림 2. 진로장애와 자아강도의 상호작용

고집단의 경우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86, p < .001$), 자아강도 저집단의 경우도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2, p < .05$).

자아강도 고집단과 자아강도 저집단의 표준화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은 2.03으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 간 표준화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강도 진로장애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자아강도 점수별로 진로장애에 대해 저집단(평균-1SD이하), 평균집단(평균±1SD), 고집단(평균+1SD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자아강도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고집단과 저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2이다. 자아강도 점수는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앙값을 중심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2이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자아강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 진로장애가 평균인 집단, 진로장애가 높은 집단의 진로결정수준 점수는 각각 2.9, 2.8, 1.4로 나타났다. 자아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각각 3.0, 2.7, 1.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강도 고집단과 저집단은 진로장애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장애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자아강도가 높은 집단이 자아강도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진로장애가 평균

인 집단에서는 자아강도가 낮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강도의 평균집단을 빼버리면 주효과만 나타나고 자아강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장애와 자아강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진로장애($F(2, 154) = 3.51, p < .01$), 자아강도($F(1, 155) = 2.14, p < .05$),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F(2, 154) = 2.73, p < .05$)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애와 자아강도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증 결과,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진로장애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모형검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애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진로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조은주(2001)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애와 진로정체감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또한 오치선, 이복희(2005)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세 변인들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애가 평균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진로장애를 낮추고 동시에 진로정체감을 높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살아가기 위해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진로결정을 위해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진로장애를 낮추고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개인상담보다는 집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또래와 자신의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지각된 진로장애에 대해 객관화 시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진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명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로장애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자아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 진로장애는 자아강도에 영향을 주고 자아강도는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leinmuntz(1960)가 적응적인 대학생들이 부적응적인 대학생에 비해 자아강도가 높다고 보여준 연구결과와 그리고 김경옥(2003)이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자아강도가 높은 집단이 불안을 더 정확히 인지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세 변인들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자아강도 수준이 높으나 낮으나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에 있어 자아강도가 또한 주요한 변인으로 대학생들의 자아강도를 높여줌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을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진로장애가 평균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자아강도가 낮은 집단이 자아강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진로장애를 낮춤과 동시에 자아강도를 높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강도는 심리적인 적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인으로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 자아강도가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져 상담자는 학생들의 자아강도를 높이는 것이 전반적인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아강도를 살펴보고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의 자아강도가 낮다면 진로상담보다 심리상담이 먼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 스스로의 문제이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고 준비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은 주로 상관분석을 통해 그 관계여부만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변인을 진로정체감, 자아강도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는 수시로 변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강도를 높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직업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박지연, 2007), 현실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곽인경, 2006)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자아강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적 지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집단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전체 대학생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예언변인들이 심리적인 변인들로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 상황에서의 실험연구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를 높이는 것이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수준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곽인경 (2006).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여고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23-741.
- 김경옥 (2003). 놀이치료자의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지연 (2007).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행우, 김재환 (1992). Barron의 자아강도척도의 표준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11, 187-214.
- 오치선, 이복희 (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 93-113.
- 유영미 (2005).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399-417.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 571-586.
- 장선량, 김혜영 (2004). 2004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연구. 학생생활연구, 12, 141-162.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

- 요인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하영윤 (1996). 대학생의 자아강도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Barron, F. (1953). An ego strength scale which predicts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27-33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173-1182.
- Bildwell, P. Gloria. (1969). Ego strength, self-knowledge, and vocational planning of schizophren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6, 45-49.
- Eysenck, H. J., & Eysenck, B. G. (1969). *Personality structure and measure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ushue, V. George, Clarke, P. Christine, Pantzer, M. Karen, & Scanlan, R. L. Kolone.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 307-317.
- Himelstein, P. (1964). further evidence on the ego strength scale as a measure of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Consultant Psychology*, 28, 90-91.
- Holland, J. L., Gottfredson, G. D.,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Kleinmunts, B. (1960). An extension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go Strength Scale. *Journal of consultant Psychology*, 24, 463-464.
- Long, B. E., Sowa, C. J., & Nile, S. G. (1995). Differences in student development reflected by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eni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47-52.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Osipow, S. H. (1980). *Manual for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ed). Englewood Chiffs. NJ: prentice-Hall.
- Savickas, M. L. (1989). Annual reiv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8, 100-134.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er, K.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원고접수일 : 2008. 06. 0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1.
게재결정일 : 2008. 11. 1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A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Ego-strength

Min Jeo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ego-strength in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participants were 261 college students in Gwang-ju. All the students were administered four instruments, Perceived Career Barriers scale, Career Identity scale, Ego-strength scale,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identity exerted as moderation variable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Second, ego-strength exerted as moderation variable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variables regarding career decision level to help college stud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the lack of application of education and counseling.

Key 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ego-strength